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건강관리 및 진료특성별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비교

이형숙 · 김영선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색인 : 구강건강관리, 구강위생용품, 진료특성

1. 서론

삶의 여유와 개인적 가치에 대한 자각은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충함과 동시에 인간의 건강증진욕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면서 의료보건 분야의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국민의 보건의식수준도 상당할 정도로 향상되었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사회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신건강 못지않게 중요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일생동안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예방적인 조치로 노인이 된 다음에도 20개 이상의 자기 자신의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¹⁾. 우리나라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조사 연구인력 양성 등 그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을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구강보건법 제3조에서 규정²⁾하고 있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즉 양대구강병의 예방은 구강병 발생에 관여하는 환경요인과 숙주요인 및 병원체요인 중 한 가지를 제거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기구를 차단함으로써 가능하다³⁾.

특히 치면세균막의 산 생성균에 의해서 배출되는 산으로 치아표면이 부식되기 때문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하고, 세균막의 세균독소생산으로 인한 치은의 화학적 자극 때문에 치은염이 야기되는 것을 보면 세균막 형성은 양대구강병 발생에 핵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면세균막제거는 환경요인과 병원체요인을 조절함으로써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구강위생관리법이다.

이러한 치면세균막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잇솔질로 인한 세정작용과 마사지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⁴⁾은 잇솔질의 횟수가 많을수록, 식전보다 식후에 잇솔질하는 아동이 치아우식수가 적어짐을 보고해 잇솔질 시기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Volker⁵⁾는 식사 후에 시행하는 잇솔질이 치아를 청결하게 하여 치아우식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여 잇솔질의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잇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없고, 환자에 따라서는 질환의 종류에 따른 개인의 적합한 보조구강위생용품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 관리는 물론 치간 청결이나 치은마사지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김 등⁶⁾은 주장한 바 있다. Kinane 등⁷⁾, Kiger 등⁸⁾, Loe⁹⁾도 치면세균막을 완벽하게 관리하려면 잇솔질 외에 추가적으로 보조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치과진료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와 구강건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조사 연구가 있었다. 백¹⁰⁾의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보고, 허 등¹¹⁾의 일반 치의사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정¹²⁾의 치과병원 내원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실태, 송¹³⁾의 치과위생사의 보조구강환경관리용품 권장실태 등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진료의 전문성에 접근하여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구강관리실태와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진료특성별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등을 분석하여 좀 더 실 사례의 자료를 얻고자 한다. 아울러 구강보건 의식 증대 및 구강보건행동을 습관화시켜 구강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컨텐츠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치과병·의원 6곳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3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부실하거나 미비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3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방법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 및 진료특성에 따른 구강위생용품의 인지여부와 현재 사용여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치과위생사의 협조를 얻어 미리 작성된 설문지와 구강위생용품의 사진을 이용,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 6문항, 구강위생보조용품에 관한 인지여부 16문항, 현재사용여부 16문항, 일반적인 특성 2문항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 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는 백분율로 구하였고, 주관적 구강건강상태 인지, 구강건강관리, 진료특성별과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자승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PC 12.0 버전을 이용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 총 322명 중 남자가 41.3%, 여자가 58.7%였고, 연령은 20~29세가 36%로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21.7%로 다음 순이었다(표 1).

표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y	No	%
Gender	Male	133	41.3
	Female	189	58.7
Age(year)	10~19	20	6.2
	20~29	116	36.0
	30~39	60	18.6
	40~49	56	17.4
	50≤	70	21.7
Total		322	100.0

3.2.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종류별 사용실태는 치실이 34.2%로 가장 많았고, 치간칫솔 33.9%, 양치용액 33.5%, 전동칫솔 19.6%, 교정용칫솔 10.6%, 설태제거기 10.2% 등의 순이었다(그림 1).

그림 1. Use of oral hygiene de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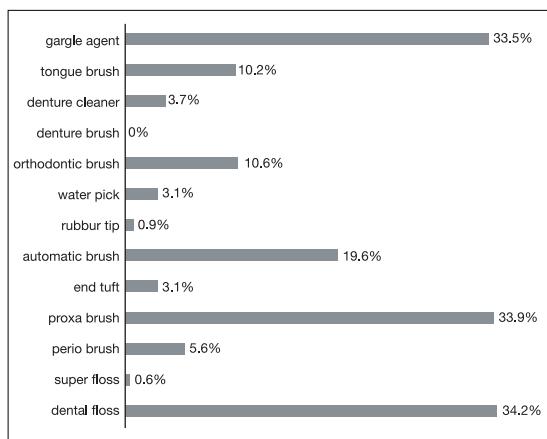


표 2. Comparison between subjective oral health condition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s

Category	Perceived presence		χ^2 (p-value)	Use of present		χ^2 (p-value)
	Yes	No		Yes	No	
Good	63(28.6)	17(16.7)	6.392 (0.041)	35(19.6)	58(40.6)	8.276 (0.016)
Moderate	77(35.0)	36(35.3)		73(40.8)	40(28.0)	
Poor	80(36.4)	49(48.0)		71(39.7)	45(31.5)	
Total	102(100.0)	220(100.0)		179(100.0)	143(100.0)	

3.3.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건강하다 28.6%, 보통이다 35%, 건강하지 못하다 36.4%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1$). 구강위생용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하다 19.6%, 보통이다 40.8%, 건강하지 못하다 39.7%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6$)(표 2).

3.4. 구강건강관리와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치과치료시기는 인지여부와 현재 사용여부 모두 1개월 미만이 40.5%, 39.7%로 가장 높아 치과치료를 받은 시기가 짧을수록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여부와 현재 사용도가 높았다. 잇솔질 횟수는 인지여부와 사용여부 모두 3~4회가 67.7%와 59.8%로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0.004$), 잇솔질 교육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인지여부 81.8%, 현재 사용여부 58.1%로 없는 경우의 18.2%와 41.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표 3).

표 3. Comparison between oral health care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s

Variables	Perceived presence		χ^2 (p-value)	Use of present		χ^2 (p-value)
	Yes	No		Yes	No	
Treatment time(month)						
< 1	89(40.5)	38(37.3)	7.053	71(39.7)	56(39.2)	2.658
1~5	49(22.3)	20(19.6)	(0.070)	38(21.2)	31(21.7)	(0.447)
6~11	32(14.5)	8(7.8)		18(10.1)	22(15.4)	
12 ≤	50(22.7)	36(35.3)		52(29.1)	34(23.8)	
Frequency of tooth brushing						
1~2	51(23.2)	45(44.1)	14.952	64(35.8)	32(22.4)	10.858
3~4	149(67.7)	52(51.0)	(0.001)	107(59.8)	94(65.7)	(0.004)
5 ≤	20(9.1)	5(4.9)		8(4.5)	17(11.9)	
Education experience of tooth brushing						
Yes	180(81.8)	46(45.1)	44.906	104(58.1)	122(85.3)	28.135
No	40(18.2)	56(54.9)	(0.000)	75(41.9)	21(14.7)	(0.000)

표 4. Comparison between dental treatments and use of oral hygiene devices

Category(no)	Perceived presence		χ^2 (p-value)	Use of present		χ^2 (p-value)
	Yes	No		Yes	No	
Preservative tx.(109)	74(67.9)	35(32.1)	0.014(0.905)	71(64.2)	39(35.8)	4.971(0.026)
Periodontal tx.(79)	52(65.8)	27(34.2)	0.302(0.582)	38(48.1)	41(51.9)	2.378(0.123)
Prosthetic tx.(38)	24(63.2)	14(36.8)	0.531(0.466)	21(55.3)	17(44.7)	0.002(0.966)
Orthodontic tx.(34)	26(76.5)	8(23.5)	1.166(0.280)	11(32.4)	23(67.6)	8.314(0.004)
Implant tx.(28)	25(89.3)	3(10.7)	6.227(0.013)	12(42.9)	16(57.1)	2.014(0.156)
Cold teeth tx.(12)	5(41.7)	7(58.3)	4.092(0.043)	10(83.3)	2(16.7)	3.886(0.049)
Scaling(58)	40(69.0)	18(31.0)	0.013(0.908)	33(56.9)	25(43.1)	0.049(0.825)

3.5. 진료특성별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진료특성별 구강위생용품 인지여부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 보존치료와 스켈링에서 67.9%와 69.0%로 인지 못하는 경우의 32.1%와 31.0%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14$, 0.013),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보존치료와 시린이치료에서 64.2%, 83.3%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35.8%, 16.7%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26$, 0.049), 교정치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67.6%로 현재 사용하는 경우의 32.4%보다 유의하게 높아

($p=0.004$), 교정환자가 대부분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을 하더라도 동기유발의 부족으로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4).

3.6. 치주환자의 권장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치주환자에게 권장되는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치간칫솔(44.3%)이었고, 다음이 치실(35.4%), 양치용액(27.8%), 전동칫솔(21.5%) 등의 순이었다(그림 2).

그림 2. Use of recommended oral hygiene devices for patient with periodontal dis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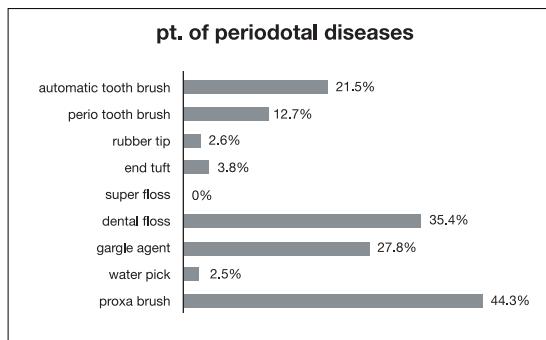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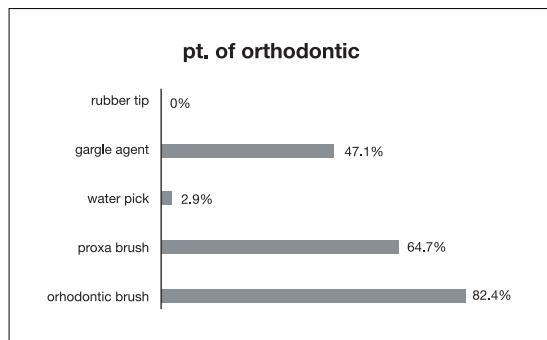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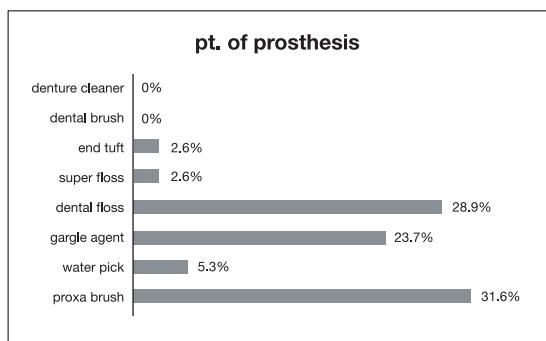
그림 4. Use of recommended oral hygiene devices for patient with orthodontic problems



3.7. 보철환자의 권장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보철환자에게 권장되는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치간칫솔(31.6%)이었고, 다음이 치실(28.9%), 양치용액(23.7%) 등의 순이었다(그림 3).

그림 3. Use of recommended oral hygiene devices for patient with prosthe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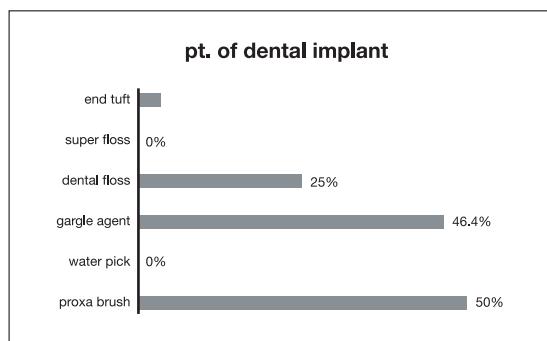
3.8. 교정환자의 권장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교정환자에게 권장되는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정칫솔(82.4%)이었고, 다음이 치간칫솔(64.7%), 양치용액(47.1%) 등의 순이었다(그림 4).

3.9. 임플란트환자의 권장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임플란트환자에게 권장되는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치간칫솔(50.0%)이었고, 양치용액(46.4%), 치실(25.0%) 등의 순이었다(그림 5).

그림 5. Use of recommended oral hygiene devices for patient with dental implant



4. 총괄 및 고안

오늘날 우리나라 구강위생용품 이용도나 중요성에 관한 연구로 김¹⁴⁾은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강위생용품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아울러 구강보건교육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목적은 구강병의 발

생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치면세균막은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산 생성의 원인이며,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독소유발의 일차적인 요소이다. 치면세균막 제거에는 칫솔질이 효율적이지만 개개인의 구강상태에 맞는 구강위생보조용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치면세균막 제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¹⁵⁾.

특히 치간부위의 치면세균막 관리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치간부위의 세균막 제거를 위해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함으로써 세균막관리는 물론 치간치은 마사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건강관리 및 진료특성별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관리상태에 따른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분석·검토하였다.

내원환자들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서 종류별로 보면 치실이 34.2%로 가장 많았고, 치간칫솔 33.9%, 양치용액 33.5%, 전동칫솔 19.6%, 교정용칫솔 10.6%, 설태제거기 10.2%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장 등¹⁶⁾의 보고에서는 치간칫솔 사용이 36.7%로 가장 높았고, 구강양치액 사용이 16.1%를 나타내었으며, 치실사용은 10.9%로 나타나 치실사용과 양치액사용이 많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임플란트의 시술증가로 치간칫솔의 사용이 많이 교육된 효과로 사료된다. 서 등¹⁷⁾의 연구에서 일반 아동과 일반 성인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률은 일반 아동에서 13.4%, 일반 성인에서 40.5%로 평균 27.9%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건강하다 28.6%, 보통이다 35%, 건강하지 못하다 36.4%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서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1$). 구강위생용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하다 19.6%, 보통이다 40.8%, 건

강하지 못하다 39.7%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6$). 이는 김¹⁸⁾의 연구에서 구강건강관리의 태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구강건강관리행동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으며, 정¹⁹⁾의 치아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가 높게 나온 것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보면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는 치과진료경험자에 의해서 높게 인지되고 행동화되므로 진료 후 환자접근성 프로그램의 구강보건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치과치료시기는 인지여부와 현재 사용여부 모두 1개월 미만이 40.5%, 39.7%로 가장 높아 치과치료를 받은 시기가 짧을수록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여부와 현재 사용도가 높았다. 잇솔질 횟수는 인지여부와 사용여부 모두 3~4회가 67.7%와 59.8%로 가장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01, 0.004$), 잇솔질 교육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인지여부 81.8%, 현재 사용여부 58.1%로 없는 경우의 18.2%와 41.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0$). 치과치료시기가 짧을수록 구강위생용품 인지도도 높고 그 실천정도도 높게 나타난 것은 구강상태의 심각성에 따른 행위라 보이며 이러한 행동의 유지 및 습관화를 위하여 계속관리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정¹⁹⁾의 치과병원에서 질환을 진단받은 후 재방문한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용품에 대한 지도 및 사용 후의 낮은 응답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잇솔질 교육 경험과 구강위생용품 사용률이 비례하는 것은 일치되게 나타났다.

진료특성별 구강위생용품 인지여부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 보존치료와 스켈링에서 67.9%와 69.0%로 인지 못하는 경우의 32.1%와 31.0%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14, .013$),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보존치료와 시린이치료에서

64.2%, 83.3%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35.8%, 16.7%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26$, $.049$), 교정치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67.6%로 현재 사용하는 경우의 32.4%보다 유의하게 높아($p=.004$), 교정환자가 대부분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을 하더라도 동기유발의 부족으로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99년 이¹⁹⁾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인 경우 전체 조사자의 27.8%만이 구강위생용품의 사용경험이 있었고, 서울시민의 경우 이쑤시개를 제외한 치실 사용과 치간칫솔질 실천자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2003년 서 등¹⁷⁾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 경험이 40.5%로 많이 증가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구강건강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대 국민 구강보건교육의 효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진료특성별 구강 위생용품 인지도는 67.6%이나 사용도는 41.0%로 정도로 인지도와 실천정도의 차이는 정¹²⁾의 보고서 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구강보건교육은 인지의 차원을 넘어서 행동의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주환자에게 권장되는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치간칫솔이었고, 다음이 치실, 양치용액, 전동칫솔 등의 순이었다. 권 등²⁰⁾은 한국인의 주된 치아발거원인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라는 점에서 노후까지 건강한 치아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두 질병에 대한 예방이 강조되어야 하고, 정¹²⁾은 치주질환은 특히 성인병의 하나로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서 등¹⁷⁾의 연구에서는 치실사용이 22.3%로 가장 높았고 치간칫솔이 16.9%로 약간 상이함을 나타냈으나, 정¹²⁾의 연구에서 치주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치간칫솔사용 41.7%와 일치하였다. 치주병 중 다빈도부위가 치간유두 염증이므

로 특히 치간관리용품 사용이 권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철환자에게 권장되는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치간칫솔이었고, 다음이 치실, 양치용액 등의 순이었다. 송¹³⁾의 연구에서 보철물환자 구강위생용품사용은 치간칫솔이 36.7%, 치실사용이 27.5%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보철환자의 경우 지대치 주변과 인공치아 기저부에 치면세균막이나 잔사가 쉽게 부착되기 때문에 치간청결용품 사용이 적극 권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주)럭키²¹⁾의 보고에서는 치실사용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치간칫솔의 개발 및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입증하고 있다.

교정환자에게 권장되는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교정칫솔이었고, 다음이 치간칫솔, 양치용액) 등의 순이었다. 인간생활의 기본요소가 의식주 외에 교육, 취업, 건강이 추가되면서 건강 또한 기능 외에도 심미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부정교합의 치료로 장착되는 교정장치물과 장치물장착치아는 세균막 제거가 용이하지 않아 브라켓 장착치아에서 무기질 탈회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구강위생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2003년 서¹⁷⁾의 연구에서는 교정칫솔사용자가 50.5%, 치간칫솔 16.9%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정칫솔사용자가 82.4%, 치간칫솔 사용자가 64.7%로 높게 나타났고, 교정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률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는 교정환자의 의자측근교육의 효과와 치아우식발생에 대한 분쟁이 야기되면서 교정장치물 관리교육이 강화되었고, 교정환자 스스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행동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정¹²⁾의 연구와도 일치됨을 볼 수 있다. 교정치료시 브라켓 장착으로 인한 국소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치면세균막의 세균 조성이 병원성 세균쪽으로 높아져 구강위생관리정도에 치주염 발생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¹³⁾. 그러므

로 교정장치물 기간에는 더 철저한 구강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임플란트환자에게 권장되는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치간칫솔이었고, 양치용액, 치실 등의 순이었다. 인공치아 매식자는 인공치아 장치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특히 인공치기저부의 세균막 축적을 예방하여야 한다. 임플란트 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에서는 치간칫솔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송¹³⁾의 연구에서와 일치되었고, 정¹²⁾의 연구에서도 현재 사용이 60.0%로 나타나 본 연구 보다도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02년 김⁶⁾의 연구에서 치간칫솔 이용률이 12.5%로 나타났던 것을 감안하면 치간칫솔이 구강위생용품 중 가장 빨리 보급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치실은 병원내원 환자에 있어서 보조구강위생용품 중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인지된 효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각 질환자 별 구강위생용품 사용에 있어서는 치간칫솔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사용방법이 쉽고, 치간청결에 효과가 높기 때문이며, 전문가의 권장 또한 치간칫솔이 빠르게 보급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서 등¹⁷⁾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쑤시개와 양치용액을 제외한 보조구강위생용품 사용률이 낮아 향후 치과치료시 내원환자에 대한 전문가의 보조구강위생용품 선정 및 사용방법교육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임플란트 환자가 증가되고 관리방법이 중요하게 교육되면서 또한 임플란트의 수명이 치주조직의 건강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환자의 의식이 높아져가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문²²⁾의 연구에서는 최근 치과병원에서의 적극적인 구강보건 교육의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 등²³⁾이 1992년에 보고한 내용 중 보조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

가가 권장해서라는 이유가 47.8%로 가장 높았고 정¹²⁾의 연구에서도 구강보건교육을 받고 싶은 곳으로는 치과에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통해 교육받을 욕구가 75%로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한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치아건강관리를 위한 의식변화, 구강위생용품 인지 및 사용을 위한 포괄적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으로,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 및 진료특성별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종류별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는 치실이 34.2%로 가장 많았고, 치간칫솔 33.9%, 양치용액 33.5%, 전동칫솔 19.6%, 교정용칫솔 10.6%, 설태제거기 10.2% 등의 순이었다.
2.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와의 비교에서 구강위생용품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건강하지 못하다 36.4%, 보통이다 35%로 건강하다의 28.6%보다 높았고($p=0.041$), 구강위생용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보통이다 40.8%, 건강하지 못하다 39.7%로 건강하다 19.6%보다 높았다($p=0.016$).
3. 구강건강관리상태와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와의 비교에서 잇솔질 횟수는 인지여부와 현재 사용여부 모두 3~4회가 67.7%와 59.8%로

1~2회 23.2%, 35.8%, 5회 이상 9.1%, 4.5% 보다 높았고($p=0.001, 0.004$), 잇솔질 교육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인지여부 81.8%, 현재 사용여부 58.1%로 없는 경우의 18.2%와 41.9%보다 높았다($p=0.000$).

4. 진료특성별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는 인지여부에서 인지하고 있는 경우 임플란트와 시린이 치료에서 67.9%와 69.0%로 인지 못하는 경우의 32.1%와 31.0%보다 높았고($p=0.013, 0.043$),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보존치료와 시린이치료에서 64.2%, 83.3%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35.8%, 16.7%보다 높았으며($p=0.026, 0.049$), 교정치료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67.6%로 현재 사용하는 경우의 32.4%보다 높았다($p=0.004$).
5. 진료특성별 권장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는 치주환자는 치간칫솔(44.3%), 치실(35.4%), 양치용액(27.8%), 전동칫솔(21.5%) 등의 순이었고, 보철환자는 치간칫솔(31.6%), 치실(28.9%), 양치용액(23.7%) 등의 순이었으며, 교정환자는 교정칫솔(82.4%), 치간칫솔(64.7%), 양치용액(47.1%) 등의 순이었고, 임플란트환자는 치간칫솔(50.0%), 양치용액(46.4%), 치실(25.0%) 등의 순이었다.

참고문헌

1. 전경미. 일부지역 사무직 근로자들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따른 구강보건관리 행태.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2005.
2. 예방치학연구회. 현대예방치학 제2판 서울: 군자출판사; 2008:7.
3.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 제4판. 서울: 고문사; 2000:21-23.
4. 장시덕. 구강보건관리에 따른 초등학생의 치아우식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5. Volker J F: The role of dentifrice in caries prevention Int Dent J 1985;8:194.
6.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 3인. 공중구강보건학 서울: 고문사; 2003:12-14.
7. Kinane DF. The role of interdental cleaning in effective plaque control:Need for interdental cleaning in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Lang, NP, Loe H, Attstrom R, Eds. In preceeding of the European Workshop on mechanical Plaque Control. Berlin: Quintessence 1998:156-168.
8. Kiger RD, Nylund K, Feller RP. A comparison of proximal plaque removal using floss and interdental brushes. J Clin Periodontal 1991;18:681-84.
9. Loe H. Oral Hygiene in the prevention of caries and periodontal disease. Int Dent J,2000;50:129-39.
10. 백대일.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보고.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1-12.
11. 혀준석, 백대일. 일반 치의사의 치아우식예방 지식과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21:215-239.

12. 정명옥. 치과병원 내원 환자들의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실태.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3. 송혜정. 치과위생사의 보조구강환경관리용품 권장실태.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4. Kim JB, Paik DI, Moon HS, Jin BH, Song YH. Dentists' and dental patients' attitudes toward oral hygiene devices selection. J Korean Acad Dent Health 1992;16(2):493–504.
15. 박홍련. D중공업 근로자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 조사.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6; 6(2):93–99.
16. 장경애, 성미경, 강현경, 최정옥, 김윤신. 일부 치과병원 흡연환자의 구강위생용품 이용도.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8;8(1):7–12.
17. 서은주, 신승철, 서현석, 김은주, 장연수.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27(2):177–193.
18. 김해경. 자기구강위생관리행위에 관련된 요인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9. 이향님. 구강보건 행동이 치은염 이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0. 권호근, 최충호. 예방치과 진료 항목 보험급여 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26(3):271–281.
21. (주)럭키. 한국인의 구강보건행동 및 구강보건 의식에 관한 2차보고서. 1991:10–55.
22. 문미영. 치과위생사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지식과 구강위생용품 교육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3.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진보형, 송연희. 구강환경관리용품의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2;16(2):493–504.

Abstract

Comparison study of oral health care and dental treatments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among the patients

Hyung-Suk Lee, Young-Sun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Keywords: Oral health care, oral hygiene device, dental treatments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for patients who visited dental clinic in Daegu and kyungpook area. The oral health care, dental treatments about the use of oral hygiene devices were obtained through self-administering questionnaires from 1 to 30, August, 2006.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percent of using dental floss was 34.2%, followed by interproximal brush was 33.9%, mouthrinse was 33.5%, electric toothbrush was 19.6%, orthodontic brush was 10.6%, and tongue cleaner was 10.2%.
2. Poor to perceive oral health was 36.4% in the patients who perceived oral hygiene device, an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Moderate to perceive oral health was 40.8% in the patients who using oral hygiene device, and there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3. In the patients who 3 or 4 times toothbrushing a day, the average percent of perceived oral hygiene device was 67.7%, and the average percent of using oral hygiene device was 59.8% ($p<0.05$). In the patients who had experience of toothbrush education, the average percent of perceived oral hygiene device was 81.8%, and the average percent of using oral hygiene device was 58.1% ($p<0.05$).
4. The average percent of perceived oral hygiene device was 67.9% in dental implant treated patient, and was 69.0% in patients with cold teeth ($p<0.05$). The average percent of using oral hygiene device was 64.2% in prosthesis treated patient, and was 83.3% in patients with cold teeth ($p<0.05$). The average percent of non-using oral hygiene device was 67.6% in orthodontic treated patient ($p<0.05$).

5. In patient with periodontal disease, the average percent of using interproximal brush was 44.3%, followed by dental floss was 35.4%, mouthrinse was 27.8%, and electric toothbrush was 21.5%. In prosthesis treated patient, the average percent of using interproximal brush was 31.6%, followed by dental floss was 28.9%, and mouthrinse was 23.7%. In orthodontic treated patient, the average percent of using orthodontic brush was 82.4%, followed by interproximal brush was 64.7%, and mouthrinse was 47.1%. In dental implant treated patient, the average percent of using interproximal brush was 50.0%, followed by mouthrinse was 46.4%, and dental floss was 25.0%.